



03 ISSUE

최근 청와대의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안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04 NEWS IN NEWS

협회에 윤리위를 두어 안경사의 자격정지 권한을 주자는 의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후 안경사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12 INSIDE

칼자이스비전코리아의 최약준 대표는 올해 자이스의 사업방향을 설명하며, 안경사는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이데코의 성공 경쟁력!! ★★

이젠!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높아지는 인건비! 저마진 수익구조! 더이상은 NO~!!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주문과 재고관리를
한 번에!!

자동주문시스템 도입!!

인건비 ↓

대한민국 최초
위탁안경체인

EYE.DECO



방문상담 예약전화 : 010-6568-0661



렌즈매니저 2018.01 메이러브 라인업 출시

COMFORTABLE FOR A MONTH

MAY LUV

메이러브 클리어 실리콘 하이드로겔
1-month/ 1pack 2pcs



MAD ABOUT YOU

MAY LUV 3 CON

메이러브 3 CON 실리콘 하이드로겔 1-month/ 1pack 2pcs



Mad about you

MAY LUV

메이러브 데일리
1-month/ 1pack 2pcs



메이러브는 (주)안경매니저에서 새롭게 런칭한 콘택트렌즈 전문샵 렌즈매니저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렌즈매니저
가맹 상담중

(주)안경매니저
가맹 안내·문의

가맹 조건

구분	가맹비	월관리비
안경매니저	500만원	30만원
씨채널안경	500만원	20만원 원부 상권 별도 책정
아이피아	1000만원	30만원

※일부 지역 제외

가맹상담 및
상권분석

총	괄	이재형	본부장	010-9670-6666
서울 · 경기북부 · 충북	서영태	팀장	010-9364-1739	
인천 · 강원 · 경기남부 · 충남	이준영	팀장	010-9424-5438	
전 남 · 전 북	노용선	팀장	010-3092-9239	
대 전 · 경 상 도	노장호	팀장	010-9976-5058	

NAVER

You Tube

facebook

각 검색창에 안경매니저를 검색하시면
UX컨텐츠 영상과 이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아



안경매니저



씨채널안경



ASAHI 1.67 / 1.74 양면비구면 UV 퍼펙트 출시!



안경렌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시력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
아사히 누진다초점렌즈가 거러 안경원을 신나게 만듭니다.

아이미광학 T.02.774.4477 F.02.753.9262

벼랑 끝에 몰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서 '콘택트의 온라인 판매 허용' 건의...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물 검토 후 올해 내 결정' 보고

복지부, '검토는 단지 검토일 뿐'
법 시행 시 안경사제도 유명무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올해 안에 허용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한 제안자가 '국내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현실에서 유독 국내에서 콘택트렌즈를 의요기기라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를 막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콘택트렌즈는 의요기사업에 의거해 안경원에서 안경사만 판매토록 정하고 있고, 안경사가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콘택트의 사용법과 부작용을 설명한 후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한 후 "우리 부는 올해 안에 콘택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전과 후에 눈 질환 발생 변화와 안경사의 사전 교육효과 등 전반적인 실태를 연구용역 의뢰해서 얻은 결과물을 분석해 온라인 판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제안자,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현실 주장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안경사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그동안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현행법상 절대 불가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던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실태 파악 후 허용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어 일선 안경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란 주제의 규제개혁 토론회 모습이다.

여부를 검토 결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 변화"라며 "복지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미 허용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안경사 역시 "안경사 전문성을 상징하는 콘택트렌즈가 만에 하나라도 규제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온라인이 허용되면 안경사제도는 쓸모없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것"이라며 "문제는 전 현직 집행부가 장비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올해 8월에 허용되고, 이어서 콘택트까지 거론되도록 방치한 무능한 집행부에 심한 배신감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더구나 안경사 업권과 안경원을 이 지경으로 망친 위인들이 무슨 염치로 조합을 만든다고 전국을 다니는지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해 했다.

그러나 안경사의 반응과는 달리 대다수 관련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무기명을 요구한 국내 한 콘택트렌즈 생산판매 업체 대표는 "지난 2011년에 안경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판매한다는 법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대다수 업체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경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정작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안경사들은 업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과당경쟁으로 콘택트렌즈 가격만 붕괴시켰다"며 "솔직히 콘택트 업체 대다수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콘택트 온라인 판매 여부는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얻은 결과를 살핀 후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아마도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가 '현재 복지부 입장이 지금까지와 달라서 안경사들이 불안해한다'는 말에 이 관

계자는 "온라인 판매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말 그대로 검토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규제혁신 관련 추진방안을 논의한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의요기기 분야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합동 취재반

서클렌즈 조연도 '안과의?'

유력 일간지서 서클렌즈 관련 안과의사 멘트 첨부... 안경사들은 심기 불편

최근 국내 유력 일간지가 국내 서클렌즈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각막염 등 심각한 눈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는 안과의사의 인터뷰 내용만을 게재해 안경사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업체에 따르면 전체 렌즈 판매 가운데 서클렌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 생산 및 수입액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2천억 원 수준으로써 존슨앤드존슨비전·바시름 등 외국계 4대 업체가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 87%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매체는 10대 여학생부터 20대 젊은 여성층까지 서클렌즈가 빠

르게 확산된 이유를 이들 4대 업체의 대대적인 소비자 마케팅에서 찾고 있는데, 유명 연예인 등 인기가스타를 활용한 공중파 CF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과 함께 서울에서 영업 중인 한 안과의사의 '렌즈가 예민한 각막에 직접 닿는 만큼 각막염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충고를 덧붙여 많은 안경사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서클렌즈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싶으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안과의사보다 안경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언론사의 안경사에 대한 시선을 보는 것 같아 쓸쓸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독

■ "정부가 안경의 온라인 허용을 착착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정작 지도자들 마음은 회장 선거장에 가 있으니..."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

■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맞은편에 새 안경원이 오픈했네요. 무슨 비장의 카드라도 있나? 요즘같은 불경기애 당체 이해가 안 가네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안경사)

안경사 자격정지 권한 주는 법률안 ‘갑론을박’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논란 증폭… 개정안 통과 시 중앙회 윤리위 권한 막강



▲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의해 중앙회에 설치될 윤리위원회의 안경사 자격정지 기능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한 안경원의 내부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말 통과된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00)에 일선 안경사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기법 제16조의 대폭 수정으로 ▶의료기사 단체의 법정단체화 ▶중앙회 내에 윤리위원회 구성 등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대한안

경사협회의 윤리위원회를 통한 안경사 자격정지’이다.

온라인의 한 대표적 안경사 커뮤니티에 어느 안경사(아이디: 법안폐기)는 ‘안경사 면허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 역시 위험할 수 있다. 공익도 아닌 사익단체가 개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만든 건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헌법정신의 위배사항이다.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이 법안은 폐기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아이디의 한 안경사는 이 글의 댓글을 통해 ‘윤리위에서 몰상식한 안경사를 이제 몰아내야 한다. 안경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할 것이며, 좀 더 안경계가 발전된 모습으로 변해야 희망이 있다’고 윤리위의 자격정지 기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의기법 제16조 개정안에 윤리위

의 자격정지 기능의 유무는 현재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의기법 16조 6항에 ‘중앙회는 윤리위를 둔다’고 했고, 바로 다음 7항에는 ‘윤리위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12월 전에 관련 대통령령이 확정돼 그 규정에 의해 윤리위가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따라서 현재는 윤리위의 자격정지 기능 여부는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윤리위의 안경사 징계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어서 현재 이를 두고 자격정지 여부를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만약 협회 윤리위원회가 누진렌즈를 과다하게 할인한 안경사에게 자격정지 결정을 내리면 위헌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대안협회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철저히 연구해 현명한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Tip.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6조(중앙회) ⑥ 각 중앙회는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난해 안경수출, 큰 폭 증가

2017년 안경류 수출 동기대비 11.2% 상승… 환율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은 ‘호름’

우리나라 안경 수출이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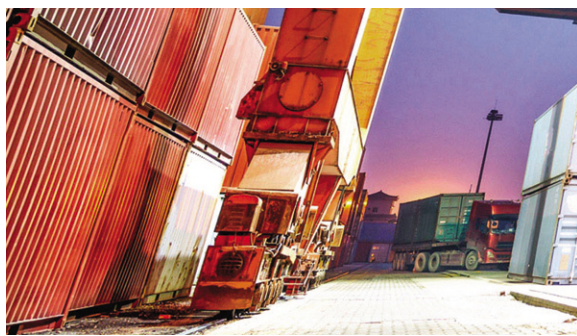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2월 수출입현황’을 보면 2017년 12월까지 수출은 5억 1천만 달러로 동기대비 11.2% 상승하고, 수입은 지난해 대비 0.6% 하락한 5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국내 안경류의 수출이 두 자리 수로 크게 증가한 원인은 특정 분야가 아닌 전 분야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한 때문으로 안경렌즈를 제외한 안경테,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안광학기기 등에서 평균적으로 14.8% 증가했다. 특히 안광학기기는 12월까지 1억 1천만 달러를 수출해 동기대비 25.9% 증가해 안경류 수출의 상승을 주도했다.

대전의 한 안광학기기 업체의 관계자는 “미주와 EU 등 기존 주력시장 외의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틈새시장 공략이 적잖은 효과를 얻었다”며 “그동안 일본제가 주도하던 세계 안광학기기 시장에서 국산의 점유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국의 안경관련 수출액이 지난 2012년 이후 3년 연속 평균 5.8%씩 하락세를 보인 후 2016년 들어 1%의 증가로 돌아서고, 2017년에는 11.2%의 유례없는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것은 안경업체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지만, 수출의 활황세가 내수경기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경업체의 고민이다.

대구의 한 아이웨어 수출업체의 대표는 “지난 3년간 환율 하락이 계속되어 수출업체들은 환차손 요인으로 수출 경쟁력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천원 이하로 떨어지면 상당수 업체가 수출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2017년 1월 기준 1,152원까지 오른 이후 현재는 계속 하락해 지난 26일 기



	수출	수입
2012년	539,728,000	524,549,000
2013년	501,457,000(▼7.1%)	533,001,000(▲1.6%)
2014년	468,587,000(▼6.6%)	553,762,000(▲3.8%)
2015년	451,024,000(▼3.7%)	589,124,000(▲6%)
~2016년 12월	455,768,000(▲1%)	585,561,000(▼0.6%)
~2017년 12월	513,478,000(▲11.2%)	581,994,0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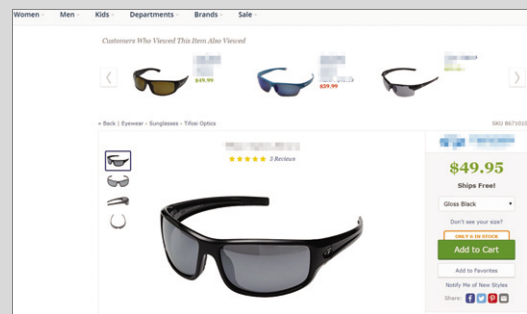
▲ 2012~17년 국내 안경관련 무역현황(단위: 달러/ 출처: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준 1,064원까지 떨어졌다. 예를 들어 도수테 한 장당 2달러에 수출하는 업체는 현재 원화로 환산할 경우 2,2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환율하락이 지속돼 900원까지 떨어지면 1,800원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환율시장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안경류의 무역수지는 6천 8백만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직구 열풍, 이제 우리가 간다

中, 한국제품 해외직구 증가… 무역협, 외국인 온라인 사이트 오픈



▲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중국의 한 아이웨어 쇼핑몰 화면.

현재 중국 내에서 해외 직구구매, 구매대행, 해외쇼핑 관광을 통해 중저가 사치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명품시장은 최고급 명품시장과 중저가 명품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근 강력한 부패척결 정책으로 고가의 명품 선물이 줄면서 중국의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과 개성 있는 디자인의 중저가 명품 브랜드로 몰리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6월말 외국인 전용 해외직접판매(B2C) 쇼핑몰 Kmall24를 오픈해 외국인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 미국 페이팔 계정과 중국 알리페이 계정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페이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으면 결제되어 그들의 해외직구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이는 국내 안경업체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Kmall24에 진입할 수 있다면 전문 수출업체가 아니라도 중국 등에 자사 제품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미 대구의 몇몇 안경 제조업체들이 Kmall24 입점을 무역협회 측에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이트 오픈 이후 월별 중국인 고객 매출 전월대비 증가율은 4월 115%, 5월 143%, 6월 190%로 매달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UV ZERO

Blue Light is everywhere



(주) 하이비전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3310호

Tel. 1899-7391 Fax.031.278-1892 Mail.hivisionkorea@hivision.co.kr Web.www.hivision.co.kr



●경기대명 - 경기남부 031-391.5942 ●신성울탁-대전.충북남 042.535.1514 ●하이비전 - 부산.울산.경남 1600.0970/051.257.7001

새 16개 시도 회장들... '안경사 업권' 부쩍 강조



서울시안경사회 장일광 회장

건강하고 투명한 지부,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회원의 권익과 업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선임 지부로 거듭나겠다. 임기 시작인 지금은 물음표지만 임기를 마칠 때는 느낌표로 보답하겠다.

(새)대한안경사협회 소속 16개 시도 지부의 정기총회가 지난 10일 강원도 안경사회를 시작으로 30일 경북과 경남안경사회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대 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는 각 시도지부의 전년도 업무 및 수입 지출 결산(안)과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2부 행사에서는 각 안경사회를 향후 3년간 이끌어 갈 새로운 회장 선거를 통해 신입 회장은 11개 지부, 나머지 5개 지부는 재임되었다.

전국에서 20여 일간 연속 개최한 시도안경사회의 정기총회에 대해 경기도의 한 대 의원은 "이번 20대 회장 선거는 지난 18대와 19대에 비해 새롭게 선출되는 회장들이 많이 늘어나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시도 회장님들이 일치단결해 안 경계에 노정된 현안을 시원하게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에 선출된 16개 시도지부장들의 간략한 취임 소감이다.



사진은 서울시안경사회의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부산시안경사회 진영일 회장

제20대 부산시안경사회의 슬로건은 '기본과 상식'이다. 안경사로서 의무를 다하고 직분에 맞게 행동해 국민들의 안(眼)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 곁으로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대구시안경사회 이종호 회장

선거기간 동안 회원들의 애로점과 미래의 걱정을 나누며 각오를 새롭게 했다. 가슴 찡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임기 3년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안경사회를 만들겠다.



인천시안경사회 이주신 회장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인천시안경사회의 전통과 위상을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며, 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안 경업계 발전에 노력하겠다.



광주시안경사회 정남천 회장

수석부회장으로 봉사해오다 회장으로 선출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회원을 위한 여러 정책을 준비 중인데 특히 교육과 복지정책, 또 안경사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울산시안경사회 권순우 회장

지난 3년간 부족한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성원을 보내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롭게 출발하는 임기에도 회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크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안경사회 이명석 회장

업계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자율규약심의위원회를 확대해 적극 대응하겠다. 또한 총괄부회장 직책을 마련해 경기북부에 안경사회관 건립을 추진해 후배들에게 발전된 환경을 물려주겠다.



충북안경사회 변효섭 회장

지난 3년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3년간도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업계가 발전하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충남안경사회 장광천 회장

지역봉사활동 등으로 분회 활성화를 기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경사의 성장을 도모하겠다. 지역대학과 협력으로 구인난 해소, 안경원 휴일제 정착 등 건전한 풍토 조성에 진력하겠다.



전북안경사회 차장헌 회장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회장을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안으로는 안경사 회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안경사 업권 수호와 신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지부장이 되겠다.



전남안경사회 이병규 회장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일이라면 몸이 으스스하더라도 싸울 각오이며, 믿고 맡겨주신 회원님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재취임 경험을 살려 열심히 봉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경북안경사회 박희준 회장

앞으로 회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회원의 동반자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경북안경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



경남안경사회 양우혁 회장

우리 업계는 현재 큰 위기로서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다. 앞으로 윤리위원회를 더욱 강화해 불법과 탈법을 근절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각오다.



제주안경사회 김대원 회장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많은 안경사님들이 겪는 불황, 또 희망이 없는 현실에서 작은 힘이지만 안경사에게 희망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겠다.

2018 맑고 밝은 세상을 여는

다비치안경 공채모집

다비치만의 차별화된 혜택

인재육성 프로젝트

다비치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 인력양성
· 공채연봉 2,48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 3년제 졸업시 학점은행제 3+1 학사과정 가능
- 4년제 졸업시 안경광학과 석사 과정 병행가능
- 4대보험 가입
- 다비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적용(근로기준법 적용)
- 우수 공채 미국 다비치매장 연수 가능
- 대한 안경광학과 산업체 실무교육강의 기회 및 각종 학술세미나 우선 참여권 부여

전문역량 강화

다비치의 전문성으로 노안 안경시장 확대

- AI-GO VCS 를 활용한 고객응대 시뮬레이션
- 양안 시기능 검사, 비전트레이닝
- 건조안/토릭/멀티포컬 콘택트렌즈 교육
- 가까이 멀리 잘 보이는 기능성렌즈
- CS서비스, 경영관리, 마케팅, ERP, 상권분석, 현장교육

300명
모집

주 5일
근무

※가맹점 상황에 따라 다름

접수마감

2018.02.08

까지

모집요강

- 모집대상** 안경광학과 졸업 예정자 (교수님 추천서 필)
경력자 지원 가능
- 면 접** 2018년 02월 9일(금)
(면접 시 한국식 실무 검사법 예비검사 평가)
- 접 수** 다비치안경 홈페이지 (www.davich.com)
“다비치 - 채용정보 - 상시지원”으로 접수

교육관련

- 교육기간** 공채 18기 : 2018. 02. 12. ~ 2018. 04. 20.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TEL _ 070.7428.6637~8
E-MAIL _ academy@davich.com
FAX _ 02.752.6176



社説

협회 돈은 쌈짓돈?

미국 태생의 시인 T. S. 엘리엇이 지은 '황무지'라는 시의 서문이 문득 생각났다. 이 시의 서문은 <한 번은 쿠마에서 나도 그 무녀가 조롱 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애들이 '무녀야 넌 뭘 원하니?'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했어요. '죽고 싶어'...>이다.

이 시는 한 무녀가 젊었을 때 아폴로 신의 사랑 덕분에 예언하는 능력과 반 영구적인 생명을 얻었지만, 영원한 젊음을 얻지 못해 끝내 늙어서 몸이 쪼그라든 채 작은 항아리에 갇혀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시를 단순히 해석하면, 죽어서 재생하길 바라는 한 무녀가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 채 힘들게 부질없는 삶을 이어간다는 뜻일 것이다.

그동안 본지는 황무지의 서문처럼 협회 집행부를 지적하는 기사를 적잖게 보도해 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기사를 쓰지 않기를 바래왔다. 심지어 어느 때는 협회를 일부러 외면도 해보고, 어느 때는 쇠귀에 경을 읽는 것이 낫겠다며 체념도 했었다. 본지가 협회 집행부를 미워해서 일부러 지적한 것이 아니었기에 때때로 눈감고 귀 막고 싶은 때가 많았었다. 더구나 본지는 19대 집행부의 임기 마지막 달까지 잘못을 지적하는 기사를 적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 집행부는 끝까지 본지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태를 제공하고 말았다. 협회 중앙회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집행부 수뇌부가 하나카드 수수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

어진 것이다. 일반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협회에서 그것도 집행부의 임기 막바지에 불쑥 터져 나온 것이다. 더구나 전국의 회원들이 힘을 합해 사용한 카드에서 얻어진 수수료를 사용하려면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협회 수뇌부가 이를 무시한 채 1억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회의 한번 없이 무단으로 빼낸 것이다.

더구나 기가 막힌 일은 카드 수수료가 저축된 통장을 제출하라는 중앙회 감사들의 요구에 집행부 수뇌부가 '통장이 없다. 잃어버렸다. 아니 다시 찾았다'고 그때그때 말을 달리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더니 이런 황당한 일도 없다.

협회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돈 1원이라도 사업계획서에 의거해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 사업계획서에 없는 일이 부득이 발생해 예산을 전용하려면 이사회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지 않고 임원 몇명이 입을 맞추고 협회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누구도 묵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지금 일선의 안경사는 심각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오는 8월부터 저도수 근용안경이 온라인 판매를 기다리고 있고, 뒤이어 콘택트렌즈까지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몰려 있다. 이런 처지에서 협회의 핵심 수뇌부가 협회 자금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 막판에 또 터지고 말았다. /본지 허선

世評

안경문화(2)

문화융성시대의 기반에는 책이 있다. 책을 통해 다른 세상과 만나고 다른 이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나만의 통찰과 창조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책을 왜 안 읽는가'라고 탓하기보다 책을 읽고 싶게 하는 보다 다채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독서는 책을 읽는 사람의 사고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다. 사고의 전반적인 기반이 독서로서 마련된다는 것이다. 독서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국민들의 독서량에 정비례한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색하고, 자기계발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사회적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관련 책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책을 읽고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순수한 앎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부가 나쁜 게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공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기적인 공부를 강요하는 게 문제다. 그런 시간이 확장되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커진다. 이런 경향은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각종 고시에 합격한 이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듯하다. '많이 배울수록 자기만을 챙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수 이적 씨의 어머니인 여성학자 박해란 씨는 남녀평등에 대해 강의한 후 이렇게 당부했다. 교양이란 동양에서는 문자 그대로 마음의 양식됨에 대한 가르침을 배

워서 이를 자기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양을 영어로 'culture'라 하는데, 그 어원은 개발·경작에서 왔고, 지금도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교양과 비슷한 말에 '문화'가 있다. 자연을 적극적으로 형성, 개발, 순화한 성과를 문화라고 한다. 배추는 자연이지만 김치는 문화인 것이다. 또한 교양이란 쉽게 말하면 A에 관한 지식과 B에 관한 지식을 연관시킬 심적 작용이다. 예를 들어 사유(思惟)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양심(良心)은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어진 마음이다. 진실은 참의 마음이다. 어진 마음은 인격을 곧바로 세워준다. 양심은 자기의 착한 마음에 서 있다. 양심을 다진 명성은 이웃에게 주는 최상의 선심이다. 양심과 명성은 서로가 힘을 주며 공존을 누린다.

참삶의 근원은 양심에 있다. 양심은 인간이 가지는 선과 사랑의 본능이다. 양심은 자신의 자유를 존중하고 타인의 자유를 사랑한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착실한 벗이다. 양심은 가장 신성한 것이다. 양심은 침묵을 지킨다. 양심은 자기보존에서부터 사회의 모든 질서까지를 잘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의 양심은 타인이 자신에게 혹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모두의 양심은 곧 바르게 싸워 새 천지를 얻어야 한다. /우암 문운서(본지 편집위원)

DAUM에서 옵틱위클리 뉴스검색

DAUM에서 옵틱위클리 최신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옵틱위클리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www.opticweekly.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보나 본지의 구독, 광고에 관한 문의는 02-363-3885번으로 연락바랍니다.

나도코리아 | www.nadokorea.co.kr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도수렌즈 조제가 매우 쉬운
스포츠 글라스 - 애슬리

ATHLLY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 053-353-9992 F 053-351-406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ACROPOLIS
EYEWEAR

창사 20주년기념
사은대행사

행사기간 2/1 ~ 3/10

구매시 가격별 자사상품권 증정

소렐미오

SOLEMIO

아크로폴리스

ACROPOLIS



SOLEMIO

(주) 비아리코 서울시 중구 퇴계로4길 16 FS빌딩
매장 서울시 중구 소월로 16-1

대표전화 02)319-2300 팩스 02)319-2302
주문전화 02)319-0718 팩스 02)319-2303

인터넷주문 fsleeco.com

기능은 올리고... 가격은 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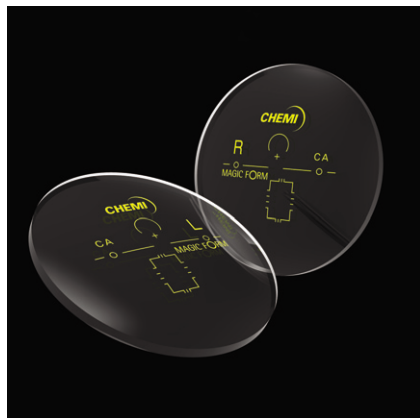
케미렌즈, 가성비 최상인 '매직폼 애니원' 누진렌즈 출시... 자외선·청광도 깔끔 차단



(주)케미그라스(대표 박종길)에서 가격대는 낮고 기능은 높은 새로운 누진다초점렌즈 'MAGIC FORM Anyon'을 런칭했다.

지난 22일 일선 안경원에 공급을 개시한 매직폼 애니원은 지난해 9월 선보인 매직폼 모바일의 후속 시리즈로써 노안 교정은 물론 최대 파장대인 400nm의 자외선 차단과 스마트폰 등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까지 부분 차단하는 기능성 렌즈이다. 특히 일반적인 누진다초점렌즈의 경우 40~50만원의 가격대인데 비해 케미렌즈의 이번 신제품인 매직폼 애니원은 10만원대라는 착한 가격으로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케미렌즈 마케팅부서의 한 관계자는 "근래는 스마트폰 등 과도한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40세 전후 젊은 고객들이 노안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매직폼 애



니원은 급증하는 노안환자에게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과격적으로 낮춘 가성비 높은 누진다초점렌즈"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사에서 매직폼 애니원의 출시를 기념하는 안경사 대상의 프로모션을 다양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55)387-3030

교육 앞선 '세이코'... 영업 신바람

한국세이코옵티칼, 안경원 방문교육 활발... 교육 참가 안경사들 만족도 ↑

객단가 높이는 판매법 맞춤 교육
2차 교육 요청할 정도로 교육 인기



한국세이코옵티칼(대표 추경의)이 2018년 새해 초반부터 거대 안경원을 대상으로 활발한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출이 급감했던 지난해 11월과 12월을 겪은 거대 안경원에 뚜렷한 차별화를 위한 프리미엄 렌즈의 판매법과 객단가를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이코는 방문 교육 시에 고기능성 렌즈인 UVF와 최상의 개인맞춤 양면비구면 A-ZONE, 클레임 없는 누진렌즈 CV-X와 AC-X 시리즈의 특징을 소개하며 차별화가 가능한 솔루션을 속속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이코옵티칼 교육팀의 장윤아 과장은 "자사는 거대 안경원이 가격경쟁에 휘말



리지 않고 렌즈의 가치를 전달하는 검안과 접객 등 안경사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팁을 전하는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안경사 분들이 2차 심화교육을 요청할 정도로 교육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장 과장은 "자사에서 공급하는 안경렌즈는 탁월한 기술력으로 생산되는 프리미엄 렌즈로써 세이코 렌즈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면 매출에 크게 도움 되는 안경원을 많이 보고 있다"며 "세이코 교육에 참가하고 싶은 안경사 선생님은 누구나 본사 또는 영업 담당자를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02)362-8226

다비치 대표 콘택트렌즈 '프레뷰' 판매 고공행진

3일 착용렌즈로 전년대비 2배 이상 판매 증가... 경제성 3배 높인 가성비 최고로 여성들에 인기몰이



(주)다비치안경체인(대표 김인규)에서 선보이는 콘택트렌즈 브랜드 'TREVUES'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118%)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콘택트의 착용 주기를 늘리면서 기존 원데이 렌즈보다 3배 이상 경제적인 3일착용 프레뷰가 뛰어난 착용감으로 장시간 착용해도 눈의 피로도가 낮다는 품질 호평까지 더해져 판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프레뷰에 대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재로 눈의 피로도가 낮은 프레뷰 렌즈는 3배나 경제적인 가격이면서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눈이 피로한 젊은 층에 인기가 높다"며 "자사는 전문 연구개발을 통



해 프레뷰 프리미엄 라인과 기능성렌즈, 원데이 등 더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4년 출시된 이후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통해 프레뷰 3DAY 이외에 3주착용렌즈 프레뷰 3WEEKS 등 다양한 제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는 다비치는 최근 개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련된 눈빛을 연출하는 컬러렌즈 프레뷰 믹시리스를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탈리아어로 3을 뜻하는 '트레(TRE)'와 '보다'의 프랑스어 '뷰(VUES)'의 복합 신조어인 프레뷰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재로 산소투과율이 높아 장기간 착용해도 피로도가 낮으며, UV차단 처리로 눈 건강까지 고려한 렌즈다.

문의 02)752-6177



Neuroscience

렌즈는 지금,
뇌과학의 영역으로...

E.N. Spiral Model

인간공학과 뇌과학이 만나
혁신적인 렌즈 설계로,
착용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드립니다.



B E L U A
RESONAS[®]

TOKAI LENS CO.,LTD.

자이스 유통학개론... ‘가격 아닌 정밀검사와 고품질’

최익준 대표, “가격경쟁은 시장 파멸, 실력으로 승부해야”... 틈만 나면 자이스의 품질 우선주의 강조

1846년 독일 예나에서 설립한 칼자이스(Carl Zeiss)는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안경렌즈, 안과기기, 외과 현미경, 전자 현미경, 정밀측정용 부품 등을 공급하는 글로벌 광학전문회사이다. 2005년 국내 안경시장에 진출한 자이스는 2011년에 최익준 대표가 취임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에서 안경렌즈와 광학기기 분야에서 최고급 제품으로 자리매김한 자이스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신제품을 런칭하는 등 더욱 활기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안녕하세요. 지난해 매출이 쑥 올랐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교육의 성과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최익준 대표 “(웃음). 그런 소문이 있나요?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자이스도 여느 회사처럼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밀 검안기기(VTS; Vision Technology Solution)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써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최종 결과물인 최고의 안경렌즈를 보다 정확하게 처방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하는 독일식 양안시 검사인 MKH 교육 이외에 올해 상반기부터는 다양한 자이스 정밀장비로 검사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는 VTS, Advanced VTS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자이스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자이스 비전센터(ZEISS VISION CENTER)가 지난 연말 서울에서 오픈했습니다.

최익준 대표 “지난 11월 말에 서울 용산에서 자이스 비전센터가 오픈했습니다. 이 안경원은 자이스의 각종 솔루션을 이용한 차원 높은 검안을 통해 최적의 안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이스 비전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미국·영국 등 13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입니다.”

– 자이스가 비전센터로 프랜차이즈에 진출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최익준 대표 “(웃음). 비전센터는 우리 회사와 완전 별개입니다. 용산 비전센터도 원장님이 독일 자이스 본사와 직접 계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비전센터는 자이스의 정밀 검안 프로세스로 고객에게 최적의 안경을 전달하겠다는 한 안경사분의 열정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프랜차이즈로 진출한다는 소문은 말 그대로 가짜뉴스입니다.”

– 최근 에너지자이시 디지털렌즈에 대한 안경사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올해 자이스가 선보일 솔루션은 무엇인가요.

최익준 대표 “대부분의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이 하루 종일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집에 가면 콘택트를 제거하고 안경을 착용합니다. 에너지자이시 렌즈는 이런 불편함



▲ 최익준 대표 약력 (現)칼자이스비전코리아 대표이사 / 한국종합과학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중 / 쿠팡비전코리아 대표이사 / 시바비전 마케팅 총괄 / IACLE 협회 멤버 / 헬싱키 대학원 졸업, MBA /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

에 착안해 개발된 렌즈입니다. 많은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이 안경에 관심이 적다보니 저렴한 안경렌즈를 사용하고 있으신데, 에너지자이시 디지털렌즈는 가격이 적당하면서도 청광차단은 물론 특히 젊은 노안환자를 위한 미세한 노안교정까지 첨가된 고품질의 렌즈입니다.”

올해 안에 유해광선 표준화 작업 완료

– 지난해 선보인 에너지자이시 렌즈와 이번에 새로 나온 에너지자이시 디지털렌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최익준 대표 “새로 나온 에너지자이시 디지털렌즈는 시야의 폭이 더욱 확대된 렌즈입니다. 또 가입도에 차이가 있어서 가입도를 0.65까지 올렸습니다. 한 마디로 근거리를 많이 사용하는 30~40대를 위해 강

도를 더 높여서 개발한 누진과 싱글비전의 중간대 렌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근거리 업무가 많은 콘택트렌즈 착용자를 위한 렌즈입니다.”

– 혹시 디지털렌즈 런칭과 관련해 프로모션은 없나요.

최익준 대표 “자이스가 그런 부분은 많이 약합니다. 그야말로 좋은 솔루션과 제대로 된 마케팅 플랜으로 안경사님을 돕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오픈한 자이스 비전센터도 각기 다른 소비자의 시력에 맞게 완벽한 검안이 필요하고, 자이스의 토탈 솔루션을 통해 0.01까지 정밀한 안경을 제공한다는 것, 또 소비자에게 안경사가 준의료인이라는 이미지를 전달이 더욱 중요한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격보다 정밀검

안이나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안경원의 건전성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해 출시할 신제품은 어떤 것인가요.

최익준 대표 “자이스는 언제나 개척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리렌즈와 광학 현미경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캐나다의 100달러짜리 지폐 뒷면에 자이스 현미경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연구 개발은 자이스의 첫째 기업 이념입니다. 올해 출시하는 안경렌즈는 아직은 대외비이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각자마다 UV와 청광 등의 기준이 모두 다른데 자이스는 유수의 연구기관을 통해 유해광선을 표준화 시키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UV나 청광차단코팅이 기본인데, 자이스는 이를 전 제품에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이스는 회사 규정상 매년 매출의 10%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도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루에 두 개씩, 일 년엔 700~800개의 특허가 나옵니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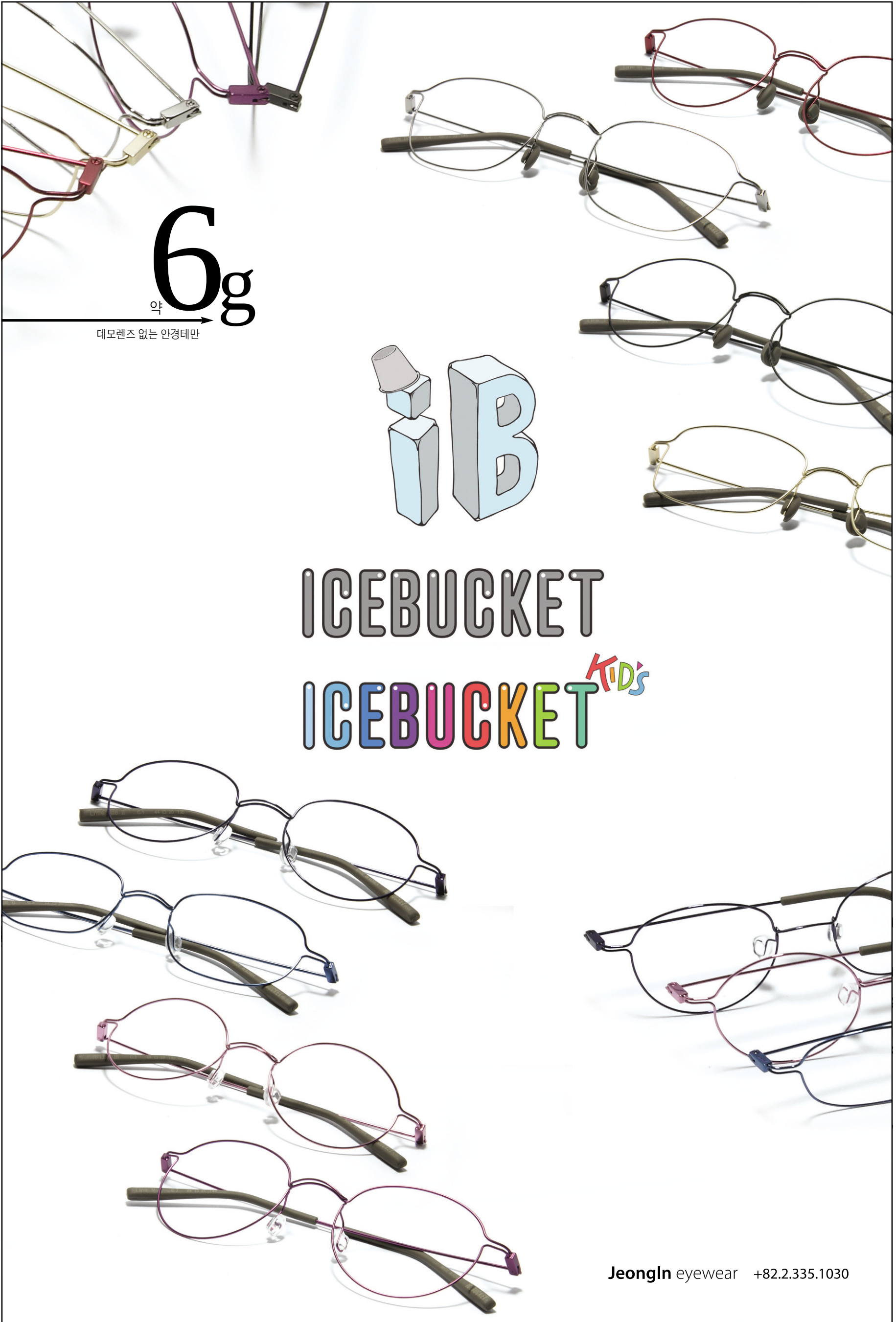
– 끝으로 국내 안경시장이 요즘 날씨처럼 춥습니다. 따뜻해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익준 대표 “요즘 많이 춥죠(웃음). 다만 힘들수록 조금 멀리 내다보는 자세도 필요한데 너무 가격만 따지다보니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출생률 감소, 라식라섹 수술 인구 증가 등으로 더욱 힘들어질 텐데 지금 같은 가격경쟁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용산의 자이스 비전센터의 원장님이 훌륭한 점은 ‘고객은 적어도 된다. 다만 나는 가격경쟁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한 쪽에선 준의료인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쪽에선 ‘누진렌즈 반값할인’을 외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경사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회사한테도 많은 분들이 매출을 높이려면 도매상을 운영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0여 년간 자이스가 추구한 것은 안경사는 준보건의료인으로 진정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이나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이스는 길이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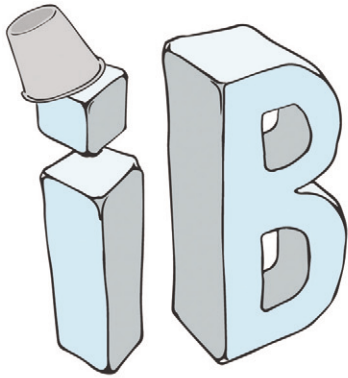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를 전공해 졸업한 공인 안경사인 최 대표는 평소 ‘안경은 가격이 아닌 안경사의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의 인식 배양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올곧은 영업정책으로 매출을 향상시키는 최 대표는 독일 본사에서 실력을 인정할 정도다. 그만큼 최익준 대표는 세계 최고의 안경렌즈를 ‘가격보다는 정밀검안과 컨설팅’으로 승부하고 있다. /김태용 기자



▲ 지난해 11월 오픈한 서울 용산의 자이스 비전센터.



약 6g
데모렌즈 없는 안경테만



ICEBUCKET

ICEBUCKET ^{KID'S}

새로움을 더하다!... '카르뱅'

투페이스옵티칼, 아름다운 컬러 빛나는 신상 화보 공개... 화려한 럭셔리 빈티지풍에 아이웨어 마니아 시선 집중

CARVEN

투페이스옵티칼(대표 고대우)의 CARVEN이 최근 2018년 S/S 시즌의 신제품 화보 촬영을 끝내고 이를 공개했다. 화려하면서도 빈티지함을 강조한 홀리데이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화보는 컬렉션의 아름다운 컬러가 눈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는 올해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신상 라인이란 점에서 수많은 카르뱅 마니아 등 안경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문의 053)353-7851



● HOUSTON_COL.03

심플한 멋을 살린 핑크메탈 컬러와 완전한 원형이 아닌 세련된 프레임 형태로 얼굴형을 보완해주는 휴스턴 컬렉션은 은은한 파스텔핑크 컬러의 틴트렌즈로 트렌디하고 러블리한 멋을 느낄 수 있다.



● PHANTOM_COL.05(좌측)

하금테 형태의 선글라스로 투명 빨데에 은은한 라이트블루 컬러의 틴트렌즈로 깔끔함을 강조하고 있다.

● EUMI_COL.03

사랑스러운 핑크컬러의 틴트렌즈와 투 브리지의 디자인이 트렌디함을 높여주고 있다.



● BOOSTER 50S_COL.02(SILVER)

신소재로 제작된 부스터 컬렉션은 착용 시 얼굴 측면부 눌림 현상을 보완할 수 있고 동그란 형태의 실리콘 노우즈 패드로 미끄러짐 없는 편안한 피팅이 가능하다.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연출에 좋고 무엇보다 나사를 사용하지 않은 트위스트 방식의 경첩은 특허출원이 완료됐다.



● SOLID_COL.02

와이드한 렌즈 사이즈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패셔너블하게 착용하기 좋은 솔리드 컬렉션은 무엇보다 착용 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갖고 있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 CONA_COL.03(좌측)

시크한 느낌을 주는 캣츠아이 스타일로 그라데이션 틴트렌즈를 사용했고 빨데 부분에 불규칙적인 패턴을 넣어 유니크한 멋을 강조했다.

● JESSIE_COL.01(우측)

라운드 프레임에 각진 형태를 입혔고 레드계열 틴트렌즈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경첩부분은 디자인적 포인트가 도리 수 있을 듯.



독일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하다

OPTOS
GERMANY TECHNOLOGY

더욱 더 편안한 개인별 완전 맞춤형
프리폼 양면 비구면 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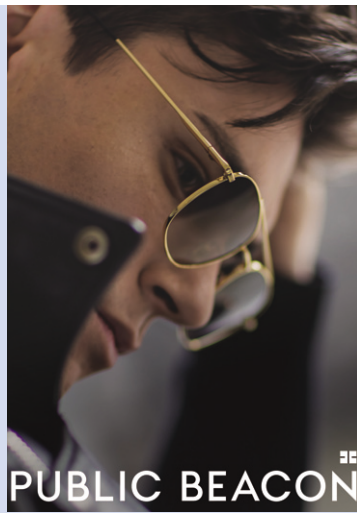


- 독일 GF공법으로 넓고 편안한 시야 확보
- 개인별 완전맞춤형 렌즈 : 개인별 생체학적 특성과 착용습관까지 고려한 제작
- 안구의 회선 각도에 따른 설계 및 특수 최적화 설계 적용

- 슈퍼하드 멀티코팅으로 업그레이드된 내구성
- 무게와 두께감 40% 이상 감소(기존 자사 일반렌즈 대비 약 40%)
- 싱글비전, 누진다초점렌즈, 기능성렌즈(변색렌즈 가능)

Technical joint with GERMANY

OPTOS LENS



STEP... 올해도 '폭풍 전시회 연다'

글라스스토리에서 주최하는 제5회 STEP 2월 7일부터 강남 SETEC서 개최... 54개 업체 참가해 다양한 프로모션 마련



▲ 지난해 2월 서울 SETEC에서 개최된 제4회 STEP 전시장의 내부 전경.

매년 서울 등 수도권 안경사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2018 SEOUL TOTAL EYEWEAR PROJECT(STEP)'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대치동의 SETEC 제2전시관에서 개최된다.

2014년에 첫 개최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올해 STEP은 화려한 콘셉트와 다양한 볼거리로 안경사들과 참가업체들의 만족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구나 '아이웨어 브랜드의 철학을 탐구하다(Explore the brand philosophy)'를 주제로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춘 올해 스텝은 현재

54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완료해 다양한 프로모션이 전개될 예정이고, 주최사인 글라스스토리도 신제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라스스토리의 한 관계자는 "매년 안경사 참가객 3천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STEP은 아이웨어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개념의 안경전시회로서 올해 역시 안경업계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STEP에 방문하는 안경사들은 현재 안경업계의 주력 브랜드로 새롭게 떠오르는 최상의 아이템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1899-1541

